

청년이 희망하는,

성남정책이야기

2020.09.19. 제1회 청년의 날 기념
성남청년온라인토론회

주관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봄 

www.snyouth.or.kr

[성남청청(청소년.청년)포럼 : 청년 온라인 토론회]

- 일 시 : 2020.09.19.(토), 11:00 ~ 12:30
- 장 소 : 성남시청년지원센터
- 운영방법 : 온라인회의 줌(ZOOM)
- 참 석 자 : 청년참여단 청년, 서은경(성남시의회 의원)
- 진 행 자 : 김정한(청년기획단'너랑'대표&마이다스아이티 인재육성파트장)
- 주 제 : **청년이 희망하는 성남 정책이야기**

[토론회 발표자 :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청년참여단 소속]

순 서	이 름	주 제	발표주제
1	김나예	일자리	청년일자리의 사각지대, 대학생 지원의 한계
2	김세은	복지	청년기본소득의 현황과 개선방안
3	송지유	일자리 복지	청년 일자리 지원대상의 한계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의 다양화
4	허지수	문화교육	청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서관
5	홍승민	주거	청년 대상 역세권 주택지원
6	김민준	문화	청년의 공간 빈곤, 적절한 청년공간의 부재
7	한현규	문화	지역기반 청년커뮤니티의 필요성과 사례
8	한채훈	문화교육 주거	청년참여,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청년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노력

[토론회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50~11:00	참석자 접속(ZOOM)	
11:00~11:05	사회자(김정한) 소개 및 참석자 전체 인사나누기	
11:05~11:20	공연 / 싱어송라이터 시은	
11:20~11:40	참석자별 주제 발표(1)	
11:40~11:55	관련 주제에 대한 질문과 의견 나누기	
11:55~12:15	참석자별 주제 발표(2)	
12:15~12:30	관련 주제에 대한 질문과 의견 나누기	
12:30	마무리 및 사진촬영	

[토론회 주요 내용]

발표자	주요 내용
김나예 (대학생)	“대학생”이라는 신분, 대학생에 대한 지원 개선 - 대학생은 나라배움카드 사용 어려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서 배제 - 대학생이 하나의 직업이 아닌만큼 대학생 대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대학생청년(휴학/재학포함) 대상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김세은 (대학생)	청년기본소득 발전방안 - 직접적으로 청년에게 지원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지만, - 현재 평균 신입사원 연령이 31세 인것에 반해, 기본소득 지급 기간은 너무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안되므로 근본적 해결 안됨 - 경제적 지원보다 경력이 많이 필요함 - 지역화폐가 좋지만, 가맹점에 대해 알기 어렵고 대부분의 지출이 많은 교통비, 통신비, 학원비 등에는 사용이 한계 -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와 홍보 - 기본소득 지급대상 연령 조정(상향) - 기본소득 외 다양한 지역기업과 협업을 통한 인턴십 등 활성화
송지유 (취업준비생)	청년의 실제적 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 - 대부분의 청년취업지원 사업, 학자금 지원 등이 경제적 소득수준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소득수준이 꼭 청년의 경제적 형편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실제적인 혜택을 받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음 - 청년들의 실제형편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함 마음건강 사업 -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했던 마음건강사업 경험. 너무 좋았으나 횟수와 재참여 기회의 제약이 있어서 아쉬웠음 - 이에 대해 보다 다양한 콘텐츠 마련과 참여기획 확대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마음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함
허지수 (대학생)	청년의 정보력 확보를 위한 사람도서관 운영 - 취업 등을 위해 실질적인 토래/경험자의 정보가 훨씬 더 필요하나

	실제로 청년들은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 합격자소서, 취업후기 등은 또래의 청년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청년취업특강 등은 강연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있음 - 청년들 스스로가 사람도서관이 되어 인맥이 없어, 정보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에게 서로 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청년들의 이야기를 영상, 문서, 정보 등을 아카이브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도서관이 필요 - 명사보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이 리스너와 스피커가 되어 청년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면 효율적이라 생각함
토론 1부	(한현규) - 방금 발표한 사람도서관의 내용이 좋았음. 판교 게임회사에 채용을 위해 면접을 볼 때 같이 면접 본 사람은 같은 회사에 선배와 소통하는 것을 봤던 경험이 있음. - 모두 다 좋은 선배나 인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잇다”라는 플랫폼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성남시에서 협업하여 청년들에게 이어주는 것은 어떨지 생각함 (홍승민) - 일자리에 대해 기업들과의 연계사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함 - 현재 더욱 일자리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 내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채용 지원 등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함 (김나예) - 청년의 마음건강 복지와 관련해서 병원을 가려고 해도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크기도 하고, - 청소년의 경우, 부모동의가 없으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음 - 청소년이나 더 어린 친구들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동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 이 부분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함. - 실제 청소년들의 대부분 문제가 가정이나 학교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경우, 불완전한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고 또 불완전한 청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의견을 이야기함

서은경의원 의견	- 김나예님이 발표한 나라배움카드의 실효성에 대해 얼마 전 대학생 딸 역시 같은 불만을 토로했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확장시키면서 대학생 배움카드에 대한 고민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됨. - 김세은님의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화폐 사용처가 확대됐지만, 청년이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이었던다는 생각과 지급연령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 해봐야 할 듯함. - 송지유님이 얘기한 마음건강과 관련해 점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는 이야기에 공감함. 일시적으로 한 두 번 하는 것 보다 깊이 있게 해야겠음. - 김나예님이 이야기한 청년마음과 관련해서 매우 마음이 아픔. 청소년과 관련 다양한 폭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지만 이후 처방 들이 효과가 미비함. 그 이후 치유단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 마련이 어려움. 앞으로 협조할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고민 하도록 할 것임 - 허지수님의 사람도서관 사업은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디어라 생각됨. 2년 전쯤 사람책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 한 시간이었나, 간절했나 다시 한번 생각이 됨. - 이런 제안이 청년사업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홍승민 (대학생)	청년 주거문제 개선 방안 - 성남시 주거현실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좋 다고 할 수 없음 - 청년들이 마련하기에 턱없이 높은 비용 때문에 아무리 대출이란 제도가 있어도 한계가 있으며, 이자 등의 금융비용도 문제임 - 성남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원거리 통근이나 높은 임대료 부담을 감수하거나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타 지자체 주거정책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정책이 없으며,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함 -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 민간주택사 청년임대주택사업은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재계약시 절반이상 계약을 포기함 - 이에 성남시에서는 꼭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 구옥 등을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음 -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김민준 (청년활동가)	청년들의 공간 빈곤에 대해 - 청년들이 학업과 일, 커뮤니티에 집중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자취방, 가족들과의 공간공유 등) - 대부분의 청년이 이러한 활동을 위해 카페나 도서관으로 표류하는 것이 현실임 - '카공족'은 자기만의 안정된 공간이 없는 청년들의 이름이고 청년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됨 - 코로나19로 더욱 더 갈 곳이 없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으로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음
한현규 (직장인)	청년커뮤니티 필요성 - 청년정책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접근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됨 -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누군가의 기득권 지원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정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됨 - 청년들의 커뮤니티 관련, 공공시설물이 너무 코로나시대 소극적이라 생각되며 청년들이 풍선효과로 다른 곳으로 더 물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됨
한채훈 (직장인)	청년 참여 확대 - 성남시에서 일반적인 지원만 있었고, 공식적인 청년의견을 전달할 루트가 없었다고 생각됨 - 성남시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조례가 지켜지지 않음 - 조례를 지키는 행정이 필요함 - 성남 청년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에는 시의회 위원회에서 다양한 청년의 분포에 따른 할당제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하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장됐으면 함 청년 주거 지원 -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장한다는 계획에 공공주택이 혐오 시설처럼 취급하는데, 청년시설이 혐오시설인가? - 청년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청년/신혼부부에 임대료를 낮추는 사업들이 시행되는데 참고하여 이런 식으로 집을 더 확보하진 못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함
토론2부	(홍승민) -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활동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정확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됐으면 함. - 또한, 청년들은 경제적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으면 좋을 거 같음. (한현규) - 오늘 여기에서의 논의가 향후 피드백 되었으면 함
서은경 의원	- 청년주택의 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점인데 공공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2017년부터 국토부에서 배포됨. - 별도의 주택을 따로 짓지 않아도 세대구분을 통해 가구를 나눌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어떨지 개인적으로 생각함. - 청년의 공간부족 관련, 성남 관내 사립작은 도서관이 백여개에 이름. 주변에 쉽게 접근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며 최근 코로나19관련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제공하기도 했음 - 더 근본적인 공간 문제해결을 필요하겠지만 작은도서관과 같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함 - 숙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청년의 참여, 활동관련 좀 더 법적인 근거 마련을 제안했는데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함.

<참고자료 : 토론회 발표 세부내용>

발표자(1)	김나예	분 야	일자리
청년이슈	청년일자리의 사각지대, 대학생 지원의 한계		
안전&의견제안	-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직업이 아님에도 직업인으로 분류되어 해당 연령, 학년기에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에서 소외됨 - 대학생청년(휴학/재학포함) 대상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배움의 위치에 있는 청년은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 학기 필요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가 끝난 후, 또는 주말마다 청년들은 어디론가 바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라는 사각지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던 제 친구는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학비충당과 취업준비 목적이었고, 딱히 특별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자격증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등록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배움카드 등록이 불가능 했고, 국비지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가격은 두배 이상 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인턴에 지원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며 실패를 반복해도, 진행되는 취업지원시스템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대학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직업의 단어적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u>대학생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닙니다.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은 실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업자임을 알아야 합니다.</u> <u>저는 일자리 관련 분야로 청년 대학생의 취업준비지원에 관하여 대학생은 더 이상 직업이 될 수 없다는 직업 정의에 대해 건의합니다.</u>			

발표자(2)	김세은	분 야	복지
청년이슈	청년기본소득의 현황과 제언방안		
안전&의견제안	- 평균취업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기본소득 지급대상 연령 조정 필요 -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성남시 청년배당) 가맹점 확대 - 청년의 역량강화 및 경력을 쌓기 위한 지역 내 구조적인 지원정책 필요		
<복지>: 청년 기본소득 지급 -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 : 성남에서 : 온라인 신청(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연 100만 원의 지역 화폐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 1조> “성남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 기본소득 현황(지급받는 사람들 비율, 여론) : 2분기 - 8,327명 23억 9500만원 지급 : 2020년 6월 22일 3분기 지급 대상 - 만 928명 - 긍정적인 측면 : 지급 대상이 한정적임 (만 24세 청년,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 -> 선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 -> 제도의 지속성이 높을 것 ➔ 직접적으로 ‘성남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아쉬운 점 및 비판 점 : 2000년대 신입사원 평균연령은 2018년 30.9세, 2020년 31세로 평균 취업 연령이 30대로 늦춰짐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 1조에서는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4세에 1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약 6년의 취업 준비 기간 (경제적 활동의 공백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돕는다고 하기에는 지급 기간이 너무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취준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경력’(인턴, 대외활동 등을 통한 커리어 쌓기)이라는 주장 : 지급되는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다는 주장(응답자의 37%), 가맹점에 대한 정보 찾기가 불편(29.4%) : 특히 청년들의 경우 교통비, 통신비, 학원 교육비에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 경우 지역화폐를 쓸 수 없음 - 개선 방향 및 미래에 추구해야 할 방법 등 : 지역 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 확대 및 홍보 강화 : 기본소득 지급대상 연령 조정(24~26,7세) : 기본소득 외에도 성남에 위치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청년 인턴십, 대외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발표자(3)	송지유	분 야	일자리, 복지
청년이슈	청년일자리의 사각지대, 대학생 지원의 한계		
안전&의견제안	- 일자리: 공공일자리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청년에 대한 지원 기회 확대(소득분위 기준 조정 등 자격기준 재고) - 복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분야 다양화 및 참여 기회 확대		

1]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조건 확대

성남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점차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경험 이외 행정복지센터에서 일 할 수 있다는 공고에 관심이 있어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건 중 성남시 주민에 대한 여부와 소득분위 기준이 있었고, 소득분위 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 지원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부모님의 소득 분위가 높아 대학교 재학 중에도 국가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경험한바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정책들의 소득분위 기준이 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2] 복지 분야 - 마음 건강

성남시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 이후 마음 안정이나 그때 참가했던 느낌이 좋아서 재참여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업 내용이 같고 이전 참여자는 3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음 건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예시로 미술 치료 아니라도 음악, 체육 테라피 등)

한번 들었던 참여자에게 재참여 할 수 있게 기회를 확장하고 재참여 기간을 축소하여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적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 성남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문화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위로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데 청년들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4)	허지수	분 야	문화교육		
청년이슈	청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서관				
안전&의견제안	- 청년이슈(테마)에 따른 청년정책 아카이브 '사람도서관' 설립 제안 :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 필요(온·오프라인) : 강연영상 수익을 통한 지역 내 청년정책 사업 활성화 지원 필요				
1)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 제공 미비와 명사 강연의 실효성 부족 2) 성남시 현행프로그램과 타 지자체의 기존 청년센터의 문제점 3) 청년정책 아카이브화한 청년을 위한 사람도서관 설립 - 취업준비, 진로탐색, 사업준비, 대학생활 준비 등 테마 설립 - 유명인사보다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동료 청년들의 공감					
4) 사업 예시					
<table><tr><td>1. 정기 강연 -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등 실내 - 강연자 섭외 :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강연자 섭외 - 강연자 예시 : ① 판교 테크노밸리 xx기업 xx직무 18년도 입사 신입사원 - (가제) '저의 취업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② 야탑역 역사골목 청년 창업자 - (가제) '30살에 월매출 xx만원 달성한 비결' ③ 해외 취업 성공 청년 - (가제) '해외 대학원진학에서 취업까지' ④ 2020년 성남시 신입 지방 공무원 - (가제) '공무원시험,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⑤ 성남시 거주 xx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가제) '로스쿨 입시 준비의 시작과 끝'</td><td>2. 수시 강연 (대나무숲) - 장소 : 야탑역 광장, 모란역 광장 등 야외 - 강연자 섭외 : 신청 접수 및 간단한 심사 - 강연자 예시 : ① 27살 청년 (가제) '자신을 아끼는 방법 ;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② 30살 청년 (가제) 성남시 대나무숲 ; 힘든 시기를 대처하는 나만의 노하우 ③ 가천대학교 2학년 학생 (가제) '가천대 재학생이 전하는 새내기 적응법'</td></tr></table>				1. 정기 강연 -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등 실내 - 강연자 섭외 :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강연자 섭외 - 강연자 예시 : ① 판교 테크노밸리 xx기업 xx직무 18년도 입사 신입사원 - (가제) '저의 취업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② 야탑역 역사골목 청년 창업자 - (가제) '30살에 월매출 xx만원 달성한 비결' ③ 해외 취업 성공 청년 - (가제) '해외 대학원진학에서 취업까지' ④ 2020년 성남시 신입 지방 공무원 - (가제) '공무원시험,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⑤ 성남시 거주 xx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가제) '로스쿨 입시 준비의 시작과 끝'	2. 수시 강연 (대나무숲) - 장소 : 야탑역 광장, 모란역 광장 등 야외 - 강연자 섭외 : 신청 접수 및 간단한 심사 - 강연자 예시 : ① 27살 청년 (가제) '자신을 아끼는 방법 ;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② 30살 청년 (가제) 성남시 대나무숲 ; 힘든 시기를 대처하는 나만의 노하우 ③ 가천대학교 2학년 학생 (가제) '가천대 재학생이 전하는 새내기 적응법'
1. 정기 강연 -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등 실내 - 강연자 섭외 :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강연자 섭외 - 강연자 예시 : ① 판교 테크노밸리 xx기업 xx직무 18년도 입사 신입사원 - (가제) '저의 취업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② 야탑역 역사골목 청년 창업자 - (가제) '30살에 월매출 xx만원 달성한 비결' ③ 해외 취업 성공 청년 - (가제) '해외 대학원진학에서 취업까지' ④ 2020년 성남시 신입 지방 공무원 - (가제) '공무원시험,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⑤ 성남시 거주 xx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가제) '로스쿨 입시 준비의 시작과 끝'	2. 수시 강연 (대나무숲) - 장소 : 야탑역 광장, 모란역 광장 등 야외 - 강연자 섭외 : 신청 접수 및 간단한 심사 - 강연자 예시 : ① 27살 청년 (가제) '자신을 아끼는 방법 ;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② 30살 청년 (가제) 성남시 대나무숲 ; 힘든 시기를 대처하는 나만의 노하우 ③ 가천대학교 2학년 학생 (가제) '가천대 재학생이 전하는 새내기 적응법'				
5) 모든 강연기록은 보관, 유튜브 채널 게시, 강연영상의 수익을 통한 지역 내 사업성 강화					
6) 기대효과 - 정보력 양극화 해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 가능, 청년의 정책수요 충족 - 청년들 간 경험의 쌍방향적 공유 가능, 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지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가치					

발표자(4)	홍승민	분 야	주거
청년이슈	성남시 청년 주택문제		
안전&의견제안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정책 필요 - 성남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청년주거정책 방향 마련 필요		
발제 개요 :			
1). 성남시 청년 주거 현실			
- 타 지역 대비 높은 지가 및 임대료			
- 성남시 내 판교 테크노밸리 등 사업체 수 증가로 인해 주거 수요 급증			
- 역세권 주택 등 청년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정책 필요성 증가			
2) 타 지자체 청년 주택 정책			
- 서울특별시 : 역세권 청년주택			
- 부산광역시 :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			
3) 제언 ; 서울시, SH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사업			

발표자(6)	김민준	분 야	문화교육
청년이슈	청년공간의 부족, 공간 빈곤		
안전&의견제안	- 청년을 고유의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만의 공간 마련 시급 - 청년의 개인활동 및 단체활동(커뮤니티 등)까지 포괄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 필요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어 카페 내부 이용이 아예 차단되면서, 공부나 취업준비를 위해 카페를 갔던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좁은 자취방에 혼자 살거나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경우에 자기만의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카페 내부 이용이 가능했던 지난날을 떠올려보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은 '카공족'이라는 이름으로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카공족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청년들만의 공간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만의 안정된 공간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카페나 공공도서관으로 '표류'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세대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는 이들에게 다시 공간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리적 공간이 사라지는 문제를 넘어서, 만나서 공부나 회의를 해야 하는 이들에게 얼굴을 맞대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적절한 청년공간의 부재가 특히 팬데믹 시대에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일까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과 함께 '청년공간의 부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발표자(7)	한현규	분 야	교육문화
청년이슈	청년커뮤니티의 현황과 필요성		
안전&의견제안	- 사례중심의 지역기반 청년 커뮤니티 필요성 제안 : 분당시사상식모임 iB (Think Bundang)		

발표자(8)	한채훈	분 야	문화교육, 주거
청년이슈	청년의 사각지대, 대학생이라는 직업		
안전&의견제안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년정책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나가야 할 것임. -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보다 명확한 규정 필요 -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 점검 및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인식개선 등의 캠페인 필요		

■ 청년들의 토론회가 더 의미 있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 일자리, 주거, 문화교육, 복지분야 중 1주제를 선택하여 발표하는 이번 토론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성남시에서 이러한 공적인 활동이 언제 있었는지 사실 가물가물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으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 왔던 수혜자인 청년으로서 고마움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점이 성남시에서 일방적인 지원만 있었을 뿐, 공식 루트를 통해 성남청년과 성남시의 행정이 원만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논의할 수 있는 청년거버넌스의 장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저는 사실 여러 정책들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 진정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과의 원만한 신뢰관계와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며 개선을 촉구합니다.

■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성남시 기본을 지켜주세요~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항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성남시 청년정책위원회는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2017년 제정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행정적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성남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추진에 있어 이해관계당사자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야하며, 청년정책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위원들을 모집하여 운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해결방안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년정책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나가야 할 것임.

■ 청년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②항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받아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몇 명이나 분포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결과에 따라,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 청년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해결방안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전체 위원회 위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등의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해가야 할 것임.

■ 청년주거 문제

- 얼마 전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하자, 마치 공공주택이 혐오시설인 것처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음.
- 공공임대주택은 장애인,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청년 등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지역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외벽에 청년주택을 반대한다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불과 1년 전 성남에서도 '서현동 110번지'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식 개선 등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단순히 청년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것만으로는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함. 수요에 맞추어 공급량을 늘려다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공주택을 청년주택으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임.
- 다만 청년들이 살아가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봄. 공공주택의 질을 높인다거나,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제한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해결방안이 요구됨.
-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새로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도입, 추진 중에 있음. 임대료는 36㎡형 9만원, 44㎡형 11만원, 59㎡ 15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거주기간은 기본 6년이며,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입주자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담을 통해 1자녀의 경우 50% 감면, 2자녀일 경우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출산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